

한방병원 간호사들의 한방간호 필수용어 활용도와 관련된 특성*

황 지 인¹ · 김 원 옥² · 왕 명 자²

¹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부교수, ²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 이 연구는 2008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임 (KHU-20080579).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yung Hee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08 (KHU-20080579).

Nurse Characteristics related to Level of Use of Essential Oriental Nursing Terms in Oriental Medicine Hospitals*

Hwang, Jee-In¹ · Kim, Won-Ock² · Wang, Myoung-Ja²

¹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²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주요어

용어, 간호, 한방의료, 간호사, 활용

Key words

Terminology, Nursing, Korean Traditional Medicine, Nurses, Utilization

Correspondence

Wang, Myoung-Ja,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Dongdaemoon-Gu Hoegi-Dong
1,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9426
Fax: 82-2-961-9398
Email: chundang@khu.ac.kr

투 고 일: 2011년 4월 6일
수 정 일: 2011년 5월 28일
심사완료일: 2011년 5월 28일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level of use of essential oriental nursing terms and related characteristics among nurses in oriental medicine (OM) hospitals. **Method:**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ith convenience sampling was employ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315 nurses in seven university-affiliated OM hospitals. The questionnaire included 174 oriental nursing terms about actions, tests, drugs, and theor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use. **Results:** The response rate was 98.1% (n=309). Overall mean score for use of essential oriental nursing terms was 2.7(±0.7) on a five-point Likert scal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use were workplace and knowledge of oriental nursing theory terms. Nurses who worked in nursing care wards and those who had a higher level of knowledge of oriental nursing theories had a higher level of use. **Conclusion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level of use of essential oriental nursing terms were below average.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knowledge of oriental nursing theories need to be implemented for nurses in OM hospitals, considering their workplace, in order to facilitate nursing data sharing and communication among healthcare provider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방간호는 한의학적 관점을 근간으로 하여 한의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간호활동을 말한다(Oriental Nursing Interest Group, 1998). 한방간호는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발전과 함께 지

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에 있어서 전통의학,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2005)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었다. 국내 한방의료 이용량을 살펴보면, 한방병원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의료이용량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0). 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국내 한방의료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강조되면서 양질의 한방간호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간호용어란 간호사간, 간호사와 다른 의료 제공자, 그리고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간호 실무를 기술하는 언어를 말한다(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05). 양질의 한방간호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제공자간에 한방간호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표준화된 용어가 필수적이다.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한 간호자료는 간호교육과 연구를 위한 자료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배경에서 간호 분야에서 표준화된 간호용어 체계들이 개발되어 왔으며(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05; NANDA International, 2007; Saba & Taylor, 2007; Westra, Oancea, Savik, & Marek, 2010), 한방간호 영역에서도 한방간호용어 표준화 사업(Hwang, Kim, & Wang, 2007)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간호용어체계의 활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전산화된 기록시스템을 가진 일반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의 표준화된 진술문의 활용수준에 대한 보고이며(Kim et al., 2005; Park et al., 1998; Song, 2007), 종이기반 시스템에서의 표준화된 간호용어의 활용과 그 관련 요소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방병원을 주요대상으로 한 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34개 한방병원 중 외래 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곳은 19개, 병동 처방전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13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한방병원은 네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2005). 이처럼 대부분이 종이기반 기록 시스템인 한방병원에서 한방간호 표준용어의 활용은 일선 간호사에게 매우 의존적인 상황이다.

간호용어의 활용도는 근무지 특성과 관련된다. 기존 일반병원에서 수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표준화된 진술문의 활용도는 간호사들의 근무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5; Paganin, Moraes, Pokorski, & Rabelo, 2008; Thoroddsen, Ehnfors, & Ehrenberg, 2010). Kim 등(2005)의 연구에서 일개 대학병원에서의 표준 간호진술문의 활용도는 70%이었으며, 내과계, 외과계, 중환자실 등 근무지에 따라 표준 간호진술문의 활용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진단 용어를 중심으로 한 표준 간호용어의 활용에 대한 연구에서 근무지가 용어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었다(Paganin et al., 2008; Thoroddsen et al., 2010). 또한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이 표준 간호용어의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호사들의 지식수준이 표준화된 간호 계획을 기록할 때 간호진단의 활용도와 관련되었다(Lee, 2005). 그러나 한방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상당

수의 간호사들의 정규 간호교육과정에서 한방간호에 대한 이론과목을 학습하거나 실습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a & Wang, 2009; Moon, Kim, Park, & Kim, 2003; Wang et al., 2004). 그리고 한방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한방간호 실무교육 프로그램이나 프리셉터 운영도 양방간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Moon, 2004). 따라서 표준화된 한방간호용어체계를 사용하여 한방간호를 표현하고 실무에서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방간호 실무 간호사들이 한방간호용어를 숙지하고 환자간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방간호 표준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방간호 분야에서 한방간호 표준용어에 대한 활용도와 관련된 개인적 및 조직적 특성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방간호에 필수적인 표준용어의 활용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개인적 및 조직적 특성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방병원 간호사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한방간호용어와 활용도가 낮은 용어체계의 영역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교육적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방간호 표준용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적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방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방간호에 필수적인 표준용어의 활용도를 파악하고, 그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방병원 간호사들의 한방간호 필수용어의 활용도를 살펴본다.

둘째, 한방병원 간호사들의 한방간호 필수용어의 활용도와 관련된 특성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방간호에 필수적인 표준용어의 활용도와 그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조사연구(cross-sectional survey)이다.

2. 연구 대상

대한한방병원협회의 병원 명부(Korea Oriental Medicine Hospital Association, 2008)에 기초하여 12개 한의과대학 부속 병원 중 본 연구에 참여를 허락한 총 7개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총 3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30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여 응답률은 98.1%이었다. SAS Power and Sample Size(version 3.1) 프로그램을 사용한 분석에서, 유의수준 0.05와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를 가정할 때, 이러한 대상자수는 11개의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다중회귀 분석에서 검정력 0.99에 해당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한방간호용어에 대한 부분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한방간호용어란 한방병원에서 사용되는 간호 현상과 증제에 대한 표준화된 한방용어로서, 한방간호용어 표준화 사업을 통해 마련된 용어 목록에서 다빈도 주요 용어로서 규명된 688개 용어(Hwang et al., 2007) 중 한방간호에 고유한 필수용어로 정의하였다. Hwang 등(2007)의 한방간호용어 목록은 한방간호 활동과 현상의 두 개의 대분류로 구성되며, 한방간호 활동용어는 침, 뜸, 부항, 마사지, 처치 및 관찰, 투약, 건강증진, 기타의 8개의 범주와, 한방간호 현상용어는 한약재료, 한약처방, 한방재료, 기구, 검사, 이론, 질병, 변증, 증상 및 징후의 9개 범주를 포함한다. 이 용어목록으로부터 다음의 두 단계를 통해 한방간호에 고유한 필수용어세트가 도출되었다.

1단계에서는, 한방간호학 담당 교수 2명을 포함한 연구진과 한방병원 실무 간호사로서 한방간호 전문가 2명의 총 5명의 7차에 걸친 연구진행 회의를 통해, 688개 한방간호 표준용어 목록으로부터 한방간호에서 고유한 필수용어로서 175개 용어세트가 마련되었다. 이 단계에서 사용된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688개 용어 중 양방간호 실무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용어들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한방간호 표준용어 목록에서 양방 및 한방 공통 용어로 제시된 47.7% (n=328)의 용어가 제외되었다. 둘째, 귀비탕, 십전대보탕 등의 구체적인 한약처방 용어와, 갈근, 부자 등의 개별 한약재료 용어로서 45개가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변증 용어 중 간단계 병변증과 같은 결합(combination) 용어와 침, 구와 같은 위계상 상위 용어로서 140개가 제외되었다.

2단계에서는, 이러한 한방간호용어들이 한방병원에서의 한방간호 실무를 반영하는 한방간호 필수용어로서의 타당성과 포괄성에 대해 자문팀(한방간호학 교수 2명, 연구대상병원의 한방간호팀장 2명, 한방간호 실무 전문가 2명)에 의해 검토되었다. 이 때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러한 전문가 검토 과정을 통해 1개 용어(일경문란)가 삭제되었고, '노빈'은 '소

변빈식'으로 변경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방간호 필수용어세트는, 침, 구, 부항, 수기요법, 망문문질, 목욕법, 팔법, 식사법 등을 포함하는 59개 증제 용어와, 한방약제, 한방검사, 질병 및 변증, 증상 및 징후를 포함하는 한방간호이론 등의 115개 현상 용어의 총 174개 용어로 구성되었다. 각 한방간호용어에 대한 활용수준은 5점 척도(5=매우 자주 사용함 1=전혀 사용하지 않음)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설문지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성별, 연령, 직위, 한방간호 실무경력, 한방간호학 교육 이수 여부, 한방간호 필수용어에 대한 지식수준 등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 때 개별 한방간호용어에 대한 지식수준은 5점 척도(5=매우 잘 앎, 1=전혀 모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요청되었다. 또한 조직적 특성과 관련하여 근무병원의 규모, 소재지, 근무부서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4.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 참여를 허락한, 7개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간호부서장 및 연구 담당 부서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연구 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수행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설문지는 연구 병원의 간호부서로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안내문, 회신 봉투와 함께 우편 발송하여 한방병원 간호사들에게 배포되었다. 이 때 개별 간호사들이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응답한 설문지는 밀봉하여 회신하도록 요청되었다. 또한 설문지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와 함께 소정의 답례(5000원 상당)를 제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사항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들에게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또한 설문지의 첫 표지에 연구의 목적과 응답 자료의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의 전 과정에서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었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버전 9.2)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대상자의 특성, 한방간호 필수용어의 활용도 등은 빈도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방간호 필수용어 활용도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Shapiro Wilk's 통계량(W)이 0.99(p=.100)로 정규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방간호 필수용어 활용도에 있어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 혹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Turkey 검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한방간호 필수용어의 활용도와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팽창요소 (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이 1.1-4.4로서 독립변수간의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응답자들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30.9세(±7.3)이었고, 20대가 63.1%로 가장 많았다. 일반 간호사가 82.8%를 차지하였다. 한방간호 실무경력은 평균 41.0개월(±44.1)이었으며, 70.2%가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방간호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들이 72.5%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 중 52.4%가 15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가진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서울 소재의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65.4%를 차지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66.0%는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한방간호 필수용어에 대한 지식수준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0점(±0.7)이었으며, 그 하부 영역별 지식수준을 살

펴보면 한방간호중재 용어는 평균 3.0점(±0.7), 한방약재 용어는 3.2점(±0.7), 한방검사 용어는 3.2(±1.1), 한방이론 용어는 2.9점(±0.7)이었다.

2. 한방간호 필수용어의 활용도

한방간호 필수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7(±0.7)점으로 평가되었다. 한방간호용어 중 28.2% (n=49)가 매우 자주 혹은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평가되었으며, '발침법', '한방과스', '침', '중풍', '보약', '구안와사', '화병', '부항: 건식, 습식', '봉독침', '문진(問診)'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48.3% (n=84)는 가끔 사용되는 용어로 평가되었다. 한편 '음양교호육', '양위', '도창법', '애권구', '봉루', '이음(二陰)', '약선법(藥膳法)', '약반법(藥飯法)', '삼습이수', '활정', '고삼법(固澀法)' 등과 같은 용어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방간호 필수용어의 활용도는 응답자의 나이, 직위, 한방간호 실무경력, 한방간호학 교육이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사후 검정 결과, 응답자의 나이에 따른 활용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관리자들이 일반 간호사들에 비해 한방간호 필수용어의 활용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한방간호 실무경력이 3년 초과인 간호사들의 필수용어 활용도가 1년 미만의 간호사들보다 유의하게 활용도가 높았으며, 한방간호학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의 필수용어 활용도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level of use of essential standardized oriental nursing terms

Variables	Categories	n	(%)	Use level		t/F	p
				Mean	(SD)		
Personal characteristics							
Age in years	≤29	195	(63.1)	2.58	(0.67)	3.69	.026
	30-39	66	(21.4)	2.79	(0.73)		
	≥40	48	(15.5)	2.81	(0.80)		
Job position	Staff	259	(83.8)	2.57	(0.67)	-5.46	<.001
	Manager	50	(16.2)	3.14	(0.71)		
Length of experience in oriental nursing practice in months	≤12	97	(31.4)	2.42	(0.73)	7.65	<.001
	13-36	120	(38.8)	2.67	(0.65)		
	37-60	31	(10.0)	2.87	(0.75)		
	≥61	61	(19.7)	2.91	(0.66)		
Education in oriental nursing	Yes	224	(72.5)	2.73	(0.69)	-2.76	.006
	No	85	(27.5)	2.48	(0.73)		
Workplace characteristics							
Hospital size (# of beds)	≤149	147	(47.6)	2.66	(0.66)	0.11	.911
	≥150	162	(52.4)	2.65	(0.75)		
Hospital location	Seoul	202	(65.4)	2.65	(0.71)	0.43	.668
	Others	107	(34.6)	2.68	(0.71)		
Department	Inpatient ward	204	(66.0)	2.71	(0.71)	-1.80	.072
	Outpatient	105	(34.0)	2.56	(0.69)		
Total		309	(100.0)	2.66	(0.71)		

〈Table 2〉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or the level of use of essential standardized oriental nursing terms

Variables	Estimate	Standard error	t	p
Intercept	0.20	0.20	1.00	0.318
Age in years	0.00	0.01	-0.13	0.897
Job position (=managers)	0.06	0.09	0.63	0.527
Length of experience in oriental nursing	0.00	0.00	-0.46	0.647
Education in oriental nursing (=yes)	0.00	0.07	-0.01	0.993
Knowledge level of oriental nursing terms				
Act terms	0.09	0.09	0.96	0.336
Drug terms	0.07	0.08	0.90	0.370
Test terms	0.05	0.04	1.41	0.160
Theory terms	0.57	0.08	7.49	<.0001
Workplace characteristics				
Hospital size (≥ 150 beds)	-0.11	0.07	-1.58	0.115
Location (=Seoul)	0.00	0.06	0.06	0.951
Department (=ward)	0.26	0.07	3.91	0.000

R-Square=59.2%, Adj R-Square=57.4%

가 유의하게 높았다.

3. 한방간호 필수용어 활용도와 관련된 요인

한방간호 필수용어의 활용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59.2%($F=32.9$, $p<.001$)이었으며, 한방간호 필수용어 활용도와 관련된 요인은 근무지($t=3.91$, $p<.001$), 한방이론에 대한 지식수준($t=7.49$,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즉 병동에 근무하고, 한방간호 이론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한방간호 필수용어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양질의 한방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대상자를 포함하여 의료진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한방간호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그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실무 간호사들이 이러한 한방간호용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질적인 간호 자료를 생성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한방간호 필수용어 중 약 75%가 '가끔 사용한다' 이상의 활용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의 단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 의료를 제공하는 일개 대학 병원에서 표준간호 진술문의 활용도가 약 70%이었다는 보고(Kim et al., 2005)와 비교할 때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점 척도로 살펴본 전반적인 활용도는 2.7점으로, 한방간호 필수용어에 대해 실무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교나 병원에서 제공된 교육을 포함하여 한방간호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들이 72.5%이었지

만, 한방간호에 필수적인 표준용어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정규간호교육과정과 한방간호 실무에서 한방간호교육이 미흡한 것과 관련될 수 있다. 즉 Wang 등(2004)의 연구에서, 3년제 및 4년제 간호대학 117개 중 그 절반 수준인 59개 대학이 한방간호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으나, 개설 학점수는 1-2학점 수준이었으며, 한방간호 관련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9개(15.3%)이었다. 또한 18개 한의대 부속 교육병원 중 한방간호 실무 프리셉터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5개(27.8%)에 불과하였다(Moon, 2004). 이와 같이 한방간호 필수용어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한방간호에 익숙하지 못한 교육적 배경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이러한 한방간호 필수용어의 활용도는 간호사들의 근무지와 한방간호 이론용어에 대한 지식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가 병동인 간호사들의 한방간호 필수용어 활용도가 외래 간호사들에 비해 높았다. 이는 근무지 특성에 따라 간호용어나 진술문의 활용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Kim et al., 2005; Paganin et al., 2008; Thoroddsen et al., 2010). 이러한 결과는 한방간호 업무수행이 주로 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다. 한방병원에서 수행하는 주요 한방간호 업무가 한약 복용과 침 등의 한방 치료와 처치에 대한 설명, 발침 행위이었다(Kang, Kim, & Lee, 2003). 실제적으로 이러한 업무는 주로 병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동 간호사들의 한방간호용어의 활용도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간호사의 한방간호 이론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한방간호 필수용어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방간호중재, 한방약재, 한방검사 용어에 대한 지식수준은 한방간호 필수용어 활용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적극적인 한방간호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한의학적 지식과 이해 부족으로 나타난 것(Kang et al., 2003)과 관련된다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한방간호 필수용어 중 한방간호 이론에 대한 지식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한방간호 이론용어에 익숙해지고 환자간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의학적 관점에 기초한 한방간호 이론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높이는 교육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한방간호 필수용어의 활용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된 요소는 아니었지만, 한방간호 중재, 한방약재, 한방검사 용어에 대한 지식은 한방간호 실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한방간호학 이론 교과목의 학습과 함께, 실습을 통한 실무 경험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한방간호 필수용어를 한방간호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근무지 특성을 고려한 한방간호 이론용어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여야 함을 보여주었다. 간호용어들은 각 간호 분야의 독특한 전문적 지식을 반영한다(Thoroddsen et al., 2010). 한방간호란 한의학적 철학과 학문적 지식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간호를 말하며, 한방간호 분야의 이론들은 음양론, 오행설, 경락설 등을 바탕으로 하며, 오장육부의 상호관계, 경락과 경혈, 기 개념 등에 대한 지식적 영역을 다룬다(Han, Kim, Hyun, Won, & Lee, 2005; Kang, 1993). 이러한 관점에서 한방간호에 대한 이론교육이 정규 간호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한방간호 실무교육 프로그램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방간호 자료의 공유와 의료진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환자간호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 추출에 의한 7개 한의과대학 부속 교육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자신의 지식수준이나 활용 정도에 대해 과대 혹은 과소 응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실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방간호 필수용어의 활용도를 간호기록자료 등을 활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파악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결 론

표준화된 한방간호용어의 적극적 활용은 양질의 간호자료를 생성하고, 보다 효과적인 환자간호 제공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한방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표

준화된 한방간호 필수용어의 활용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활용도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한방간호 실무에서 한방간호 필수용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한방간호 필수용어의 활용도와 관련된 특성은 근무지와 한방간호 이론용어에 대한 지식수준이었다. 외래보다는 병동에 근무하고, 한방간호중재, 한방약재, 한방검사 용어보다는 한방간호 이론용어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간호사들이 한방간호 필수용어를 간호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방간호 필수용어를 한방간호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간호사들의 근무지 특성과 한방간호이론에 대한 지식 향상임을 가리켰다. 따라서 향후 한방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서 한방적 간호이론에 대한 영역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방간호에서의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REFERENCES

- Cha, N. H., & Wang, M. J. (2009). Interests on oriental nursing by perception, practice, and attitude of oriental medicine of nurses working in one region.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5(1), 34-42.
- Han, S. S., Kim, W. O., Hyun, K. S., Won, J. S., & Lee, J. S. (2005).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orient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2), 362-371.
-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2005). *Current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computerized information systems in health care organizations*. Seoul: Author.
-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0). *2009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Seoul: Author.
- Hwang, J-I, Kim, W. O., & Wang, M. J. (2007). Development of Korean oriental nursing terminology se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13(2), 91-97.
-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05).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 Version 1*. Geneva: Author.
- Kang, H. S. (1993). A literature review for approach of oriental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3(1), 118-129.
- Kang, H. S., Kim, W. O., & Lee, J. M. (2003). Oriental nursing activity perceived by nurses, doctors, and patients in an oriental hospital.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8(1), 41-49.
- Kim, E. M., Park, I. S., Shin, H. J., Ahn, T. S., Kim, Y. A., Oh, P. J., et al. (2005). The analysis of standard nursing statements at electronic nursing records. *Clinical Nursing Research*, 11(1), 149-164.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6).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hospital evaluation program and specialized hospital system of oriental medicine*. Seoul: Author.
- Korea Oriental Medicine Hospital Association. (2008). *2008 Oriental medicine hospital list*. Seoul: Author.
- Lee, T-T. (2005). Nursing diagnoses: factors affecting their use in charting standardized care plan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4(5), 640-647.
- Moon, H. J., Kim, K. J., Park, S. A., & Kim, I. W. (2003). A study on oriental nursing intervention of necessity, knowledge and practi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8(1), 73-87.
- Moon, H. J. (2004). Oriental Nursing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0(1), 11-26.
- Moss, J., Coenen, A., & Mills, M. E. (2003). Evaluation of the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or a reference terminology model for nursing actions. *Journal of Biomedical Informatics*, 36(4-5), 271-278.
- NANDA International. (2007). *Nursing diagnoses: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 2007/8*. Philadelphia: Author.
- Oriental Nursing Interest Group. (1998). *College Oriental Nursing (2nd ed.)*. Seoul: Hyunmoonsa.
- Paganin, A., Moraes, M. A., Pokorski, S., & Rabelo, E. R. (2008). Factors that inhibit the use of nursing languag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Terminologies and Classifications*, 19(4), 150-157.
- Park, H-A., Cho, I. S., Kim, K. D., Kim, S. H., Park, J. S., Lee, Y. S., et al. (1998). Analysis and standardization of nursing record forms for nursing informatics standar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4(2), 69-79.
- Saba, V. K., & Taylor, S. L. (2007). Moving past theory: use of a standardized, coded nursing terminology to enhance nursing visibility. *Computer, Informatics, Nursing*, 25(6), 324-331.
- Song, K. J. (2007). Analysis of the nursing practice in a medical ICU based on an electronic nursing recor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883-890.
- Thoroddsen, A., Ehnfors, M., & Ehrenberg, A. (2010). Nursing specialty knowledge as expressed by standardized nursing languag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Terminologies and Classifications*, 21(2), 69-79.
- Wang, M. J., Kim, J. H., Kim, Y. H., Paik, S. N., Cha, N. H., Kim, J. A., et al. (2004). A study of educational situation, operation, and cognition of oriental nursing.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0(1), 126-135.
- Westra, B. L., Oancea, C., Savik, K., & Marek, K. D. (2010). The feasibility of integrating the Omaha system data across home care agencies and vendors. *Computer, Informatics, Nursing*, 28(3), 162-171.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WHO traditional medicine strategy 2002-2005*. Geneva: Author.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National Policy on Traditional Medicine and Regulation of Herbal Medicines - Report of a WHO Global Survey*. Geneva: Author.